

## C+V HOUSE > Residence > Teramo

#### GIOVANNI VACCARINI 01

Design: Giovanni Vaccarini

Design team : Laura Mrini, Lucia Tomeo Location : Giulianova, Teramo, Italy

Client : Capace-Venanzi
Build area : 926m²
Completison : 2006

Finishing materials: Floor / Concrete, Wood

Wall / Plaster, Glass,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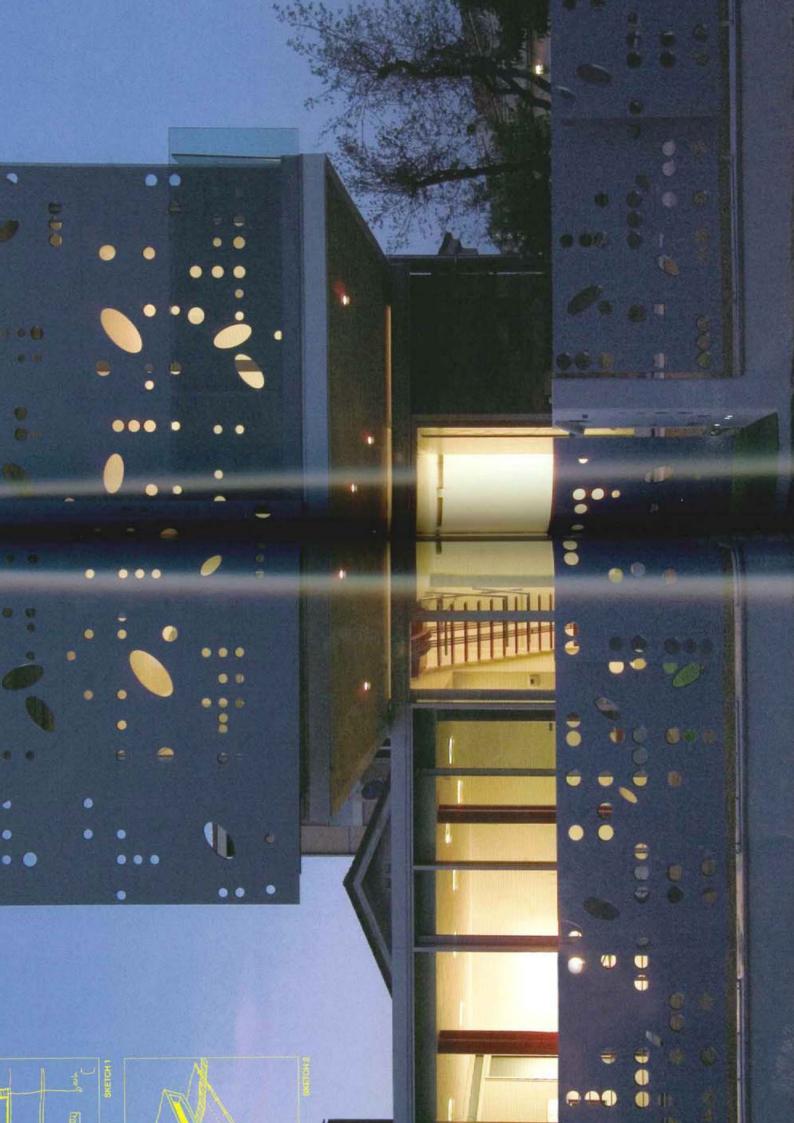
Ceiling / Plaster

Photographer: Alessandro Ciam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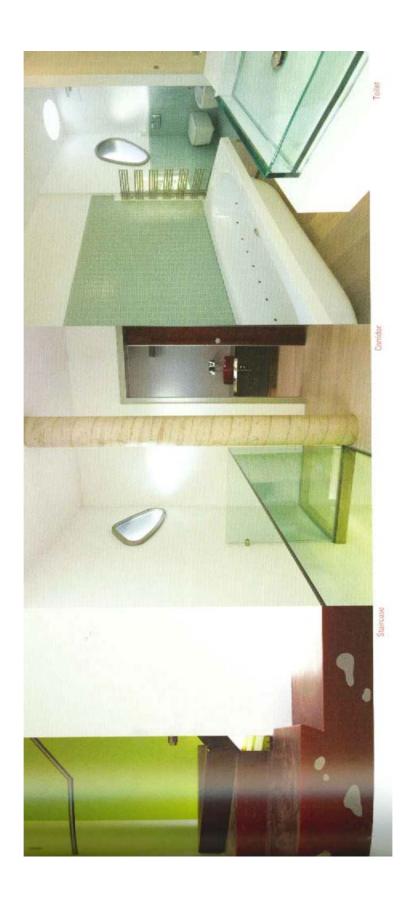
Editor: Lee Hae Rin

House Capece Venanzi is a suburban house for a young couple. It's situated in the diffuse sprawl of the Adriatic coast, in one of the possible areas of this diffuse city in the segment between Ascoli Piceno and Pescara. The site is tightened between the urban texture of two levels houses for single families and the hill, completely covered with spontaneous vegetation. The idea is to construct a building with an inverse guideline: not oriented towards the city, but towards the hill. The hill becomes a sort of 'green sea' on which people can overlook. The main compositive topic is the transposition to macroscale of one pieces of the tetris game. The two opposite volumes put in scene two different parts of the building. Their diversity is emphasized using different material treatment: a base covered with stone and a volume of white plaster. The base in stone is cut on the west side with a top to bottom glass wall. The system is defined by a three levels development. The underground level is completely dug in the land; the spaces are organized around the inside patio, creating a game of connections between the underground spaces, the green roof, the living spaces and the suspended volume of the first plan. The first floor is the collective part of the building: a great sliding glass wall marks the border between the roof garden and the covered living area. The space rotates around a metallic stair that connects the first floor with the second floor. The second level designs the private spaces of the building, bedrooms, sauna, office, toilets. The first floor volume is defined by different holes, with circular and free forms. Text by Giovanni Vaccarini

하우스 카페체 베난치는 젊은 부부를 위한 교의 주택이다. 이 주택은 아드리아 해의 바닷가를 따라 아스콜리피체도 시와 페스카라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대자는 단일 세대를 위한 2층짜리 주택이라는 도시적 맥리과, 자생 식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아산이 검쳐져 생겨나는 긴장감을 지나고 있다. 아이디어는 도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을 향한다는 거꾸로 된 지침을 적용한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산은 사람들이 그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일종의 '푸른 바다'가 된다. 구성상의 주제는 테트리스 게임의 조각을 거대한 규모로 옮겨놓는 것이다. 두 개의 상대되는 볼륨이 건물의 두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기부는 삭제로 미감하고 볼륨은 백색 회벽으로 구성하는 등 재료를 서로 다르게 처리함으로써 돌의 차이점을 더욱 강조한다. 석재로 이루어진 기부는 서축에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유리벽을 설치함으로써 두 부분으로 잘린다. 프로젝트의 조직은 3개 총으로 개발함으로써 정의된다. 지하는 땅속을 완전히 파내고 건축했다. 공간은 파티오를 중심으로 배치했으며, 지하 공간, 초록의 지붕, 생활공간 및 상부에 매달려 있는 상층 평면의 볼륨 등이 서로 맺고 있는 연관관계를 찾아내는 유회를 유발한다. 1층은 이 주택 건물의 집합적 부분이다. 대형 미달이식 유리벽이 옥상정원과 지붕을 얹은 생활구역 간의 경계를 이룬다. 공간은 1층과 2층을 이어주는 금속제 계단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2층은 침실, 사우나, 사무실 등 주택의 사적 공간을 수용하며, 2층의 볼륨은 원형과 부정형을 따는 다양한 구멍으로 정의된다. 골목자의나 바퀴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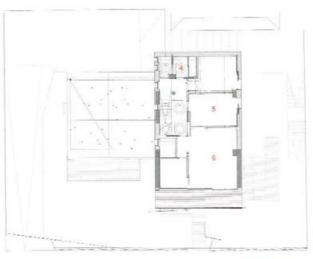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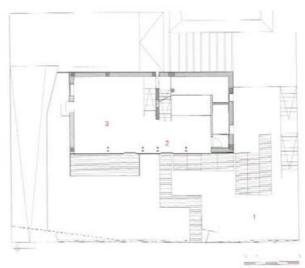


- 1 TERRACE
- 2 ENTRANCE
- 3 HALL
- 4 TOILET
- 5 BED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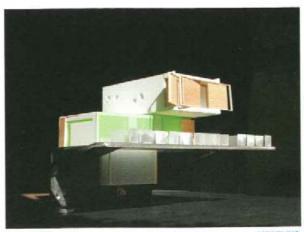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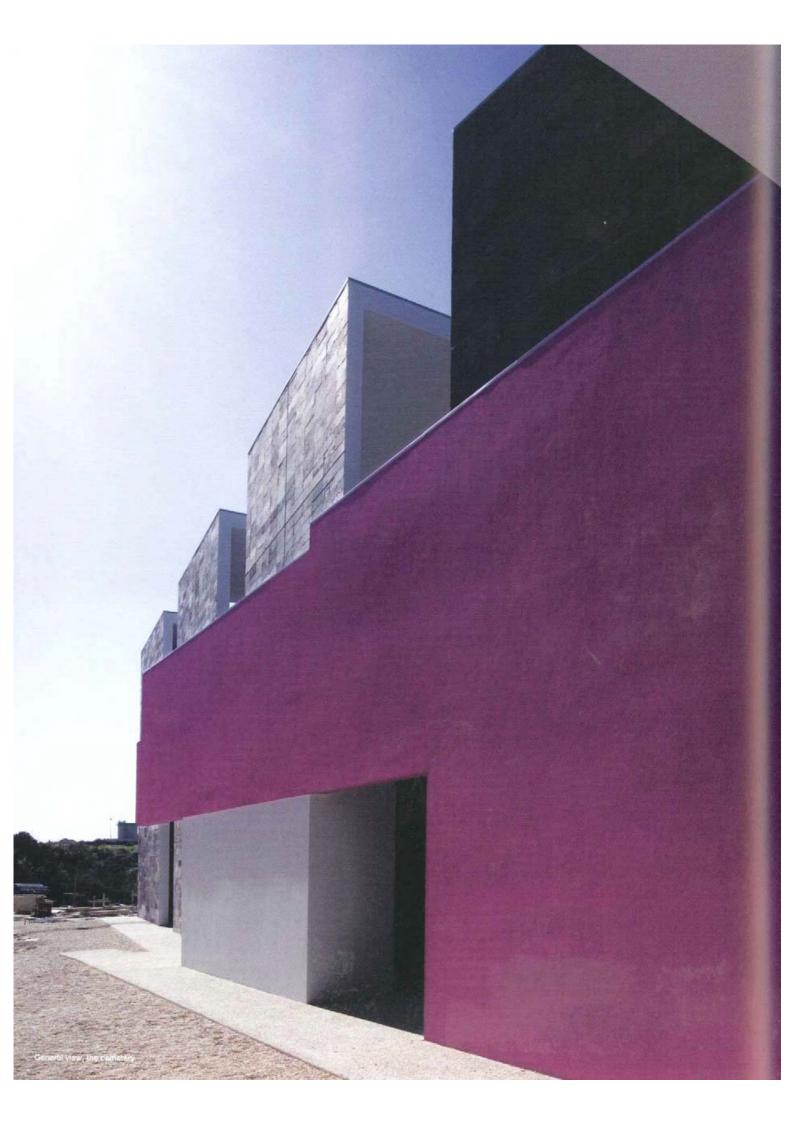
2ND FLOOR PLAN



1ST FLOOR PLAN



MODELING



# ORTONA > Cemetery > Ortona

#### GIOVANNI VACCARINI 02

Design team : Cosimino Casterini, Berardo matalicci

Location : Ortona, Chieti, Italy
Client : Progetti & Finanza
Build area : 6,612 m²
Completion : Mar. 2006

Finishing materials: Floor / Concrete

Wall / Plaster, Stone Ceiling / Plaster

Photographer: Alessandro Ciampi

Editor: Lee Hae Rin

The cemetery is one of the places of collective memory in which the signs of sliding events are guarded. Walking in these places brings our efforts in a poor dimension if compared with flowing of time. The area is the last portion of available ground for cemetery expansions. The planning resumes geometries of the historical system of the cemetery, dialoguing with this thanks to distances and alignments, adjacency and points of collimation. The result is a 'barcode' planning that dialogs with the existing cemetery. The volumes of the new cemetery open on the landscape unhinging also one of the traditional members of the cemeterial system: the fencing. The force of the landscaped presence opens the wall in flakes that frame the landscape. The existing slope suggests to organize on two accessible levels the two main quotas the plan. The Volumes are placed seam elements between the different levels. The project is based on two main materials: the covering stone and white plastering. The main volumes are just like monolith stone with great cuts. The covering is realized with a crude stone with strong chromatic variations, composed like a multitude of pixel. The cuts are emphasised thanks 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tone monolith and the plastering s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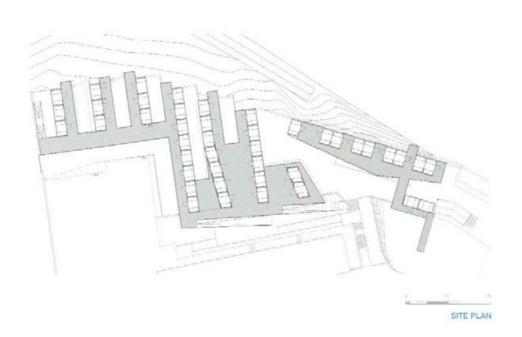
Text by Governi Vocc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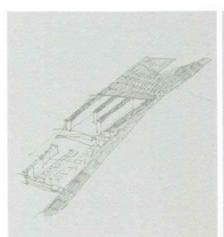
이 묘지는 자나간 사건의 혼적들을 간작하는 집단 기억의 장소이다. 이런 장소에 걸어 들어가면 시간의 호름에 비춰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되새기게 된다. 대자는 묘지의 확장에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된다. 설계에서 시각적 기준점의 위치. 가리, 배결 등을 통해 이 묘지가 예전부터 자니고 있는 기하학적 구성 형태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기존 묘지와 대학하는 관계를 이루는 비코드 설계를 이끌어냈다. 경관을 향해 열린 새 묘지의 볼륨은 전통적 묘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울타리로부터 벗어난다. 경관에 태두리를 부여하는 벽이 경관의 존재로 인해 생겨나는 함에 의해 바늘처럼 벗겨진다. 경시진 대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의 두 구획부를 접근이 가능한 두 개의 층으로 구성했다. 볼륨은 두 개의 층을 연결하는 봉합 요소로 배치된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주요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석재 마감과 백색 회벽 마감이다. 주 볼륨은 커다랗게 베어낸 자국이 있는 거대한 돌당이와 같다. 석재 마감은 색성이 매우 다양한 원석을 수많은 픽셀처럼 구성했다. 베어낸 부분은 거대한 돌당이와 희벽 부분의 차이로 인해 다욱 강조된다. 글 : 제오메니 바카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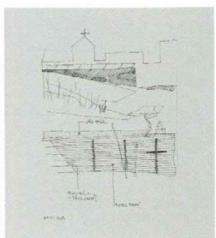












SKETCH

### GUESTHOUSE

#### **EX-ARENA BRAGA TERAMO**

Design : Giovanni Vaccarini

Location : Teramo, Italy Client : Di Ferdinando costruzio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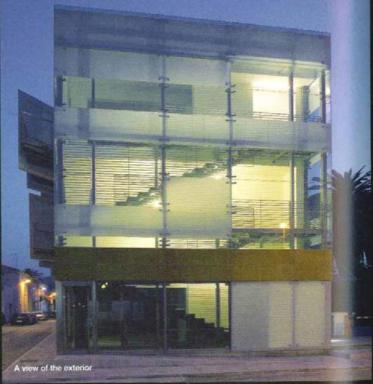
Build area: 3,471 mi

Completion : 2005 Finishing materials : Floor / Travertino Wall / Plaster, Glass

Ceiling / Plaster

Photographer: Alessandro Ciampi Editor: Lee Hae 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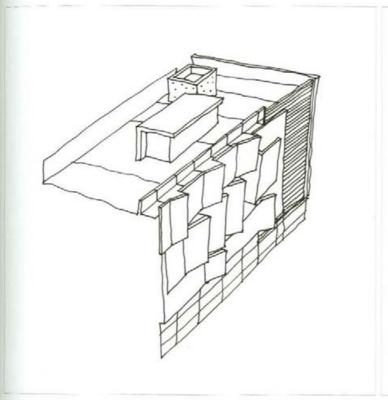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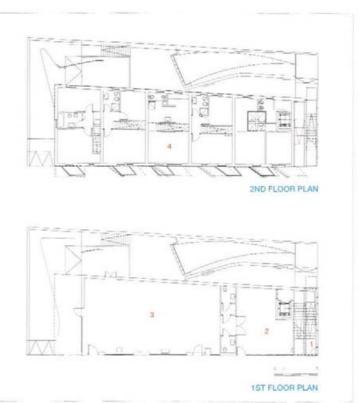
1 ENTRANCE

2 HALL

3 THEATER

4 GUESTROOM





SKETCH

The site forms part of the urban extension of one town pertaining to the diffuse long conurbation of the Adriatic coast. The project themes are seem to be very disadvantageous at first sight: - the shape, with a very impressive length; - the use of the ground floor (equipment and services for the cinema), resulting in the need for a completely free connection to the ground; - the presence of a very high and close building on the southern side. This skin bends and 'flakes'; it is a visual protection screen and a light capturing device at the same time. This is the place of reflections and reverberations; windows disappear whereas 'flakes' define cuts and projections, a surface with a sort of thickness of its own in which jutting openings face onto the sea, like sighting posts. The building houses holiday flats. Since the building shape is very long, the idea is to conceive these spaces as boat-like rather than set on firm ground; the access to all flats is provided by a long bridge on the last floor, linking to the living areas of the flats. The open space living room-kitchen is connected to the rooms downstairs with stairs but one may as well go upstairs on the terrace on the upper floor. Textby Govern Vaccaria' [21]

대지는 아드리아 해의 해안을 따라 기다랗게 펼쳐진 광역 도시권에 속하는 시가지 확장부 내에 자리 잡고 있다. 프로젝트는 인상적인 길이의 형태, 극장으로 활용되는 1층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함 필요성, 남측에 아주 높은 건물이 바짝 접해 있다는 사실 등 대단히 불리해 보이는 단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1층 전체를 단절 없이 완전히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물 내의 동선 흐름을 강조했다. 스킨은 구부러지기도 하고 '함은 비눌'이 되어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은 빛과 소리를 반사하는 장소이다. 창이 사라지고 그 대신 '젊은 비눌'이 개구부와 돌충부를 정의한다. 자체의 두께를 지니고 있는 표면에서 돌충된 개구부는 마치 전망대처럼 바다를 향한다. 건물이 바다를 따라 동서로 기다란 직사각함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 공간을 단단한 땅에 자리 잡은 것이라기보다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구성하는 것을 아이다어로 삼았다. 각 세대의 생활공간으로 이어지는 진임부는 모두 최고층의 기다란 다리 부분에 마련했다. 트인 공간으로 구성된 거실-주방에서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각 방으로 연결되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테라스가 나온다. 그 지원되다 바라라니